

국내의 사회문제에 대한 심리학 연구의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1994~2015) 게재 논문에 대한 분석

정 안 숙 [†]	어 유 경	한 규 석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국내의 심리학자들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표방하여 발간되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이같은 노력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1994년 발간 후 2015년까지 22년간 게재된 논문들을 연구 유형,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464편의 논문 중, 실증적 연구 337편의 연구내용은 대부분이 개인수준의 변인으로 다루어졌고, 이 중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분석수준으로 다룬 연구들의 비중이 낮았다(예측변인 기준 29.1%).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특정성격의 인구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특정 직업군 일반인 포함 80.9%), 연구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논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연구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한국인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 주제들(한덕웅, 최훈석, 2006)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연구되는 주제로서의 사회문제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대한국사회에서 심리학 및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체계적 개관, 사회문제,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다양성, 심리학의 역할

[†] 교신저자 : 정안숙,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심리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U837호
Tel : 032-626-6013, E-mail : granble@gmail.com

서점의 “심리학” 코너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심리학에 기대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불안·우울·자존감·중독 등 개인적으로 진단하는 문제들에 대해 통찰(insights)을 얻거나 자기치료법(self-help)을 습득하고자 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이를 대인관계나 조직역동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도서들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발전적 기여가 가능하기에, 전문가들로부터의 지침서 내지는 참고서로서 읽히는 저작들이 많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현대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고 할 법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해 심리학이 과학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1991년 9월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분과(초대 회장 조대경)가 창립되었다(차재호, 1996;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7). 1993년에 제1주제로 부정부패를, 1994년에는 일상화된 국민의식과 행동의 문제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학술대회 주제로 선정하였었다. 그 후 10년 동안은 학회의 정체성에 맞는 주제 선정이 없다가, 2004년부터 다시 한민족 통일, 가족 및 고령화, 가족·학교·문화 맥락을 고려한 아동발달, 그리고 자살 등을 각 해의 특별 주제로 다루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6). 2012년 8월에는 문화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관심을 반영하여 학회명을 문화 및 사회문제 분과로 개칭하였고(학회장 정태연), 최근에는 디지털시대 및 뉴미디어를 반영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다루기도 하였다. 학회의 창립 시점에 학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했던 것으

로 보이고 이후 약 10년간은 공식·비공식적인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학술지로서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는 분과학회 창립 3년 후인 1994년 9월에 제1권 1호가 발간되었다. 18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학술지 명칭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로 바꾸었고, 2015년 12월 현재 21권 4호를 발행하였다(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6). 그렇다면 본 학술지는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의 창립목적에 부합되게 우리 사회에서 심리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해당 연구들을 독려해왔는가?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심리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비해서 실재가시적인 개입은 지극히 적은 형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심리학이 현대한국사회라는 환경을 얼마나 생태학적으로(ecologically) 반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할 때, 선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의 학술지(차재호, 1996)가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2016년 현재 심리학과는 29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산업심리학과 또는 상담심리학과 등의 형식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형태로는 25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사이버 또는 디지털 대학교에도 19개 심리학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분야이다(교육부, 2016). 이렇게 응용 심리학 분야에 특화된 학과가 다수 개설되어 있는 것은 심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과 그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

킨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보인다.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는 “사회문제”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경향성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부정부패, 통일, 고령화 등)로 규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사실 “사회”문제라고 할 때에 그 문제의 피해자, 또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6년 현재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에 속하는 청년 실업문제가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개인의 능력으로 치면 역사 상 그 어느 시기보다 우수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일터가 적고, 따라서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들이는 시간·노력과 기회비용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인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월세와 교통비 등 필수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대학과정 중에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역시 시간제 일자리 야간도 마다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심리학적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시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적인 낙인마저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노인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의 청장년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2016년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사회라면, 노인자살이 노인만의 문제인가? 한덕웅과 최훈석의 연구(2006)에 따르면, 일반 한국인들이 “사회문제”라고 일관되게 지적한 현상은 정치인의 부패,

환경오염, 입시위주의 교육 등이었다. 그렇다면 본 학회지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과 실천 및 연구작업을 독려하는 매체로서 기능하였는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구성원이 다양한 형태로 다수 존재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제는 “사회문제”로서 규정되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을 때, 심리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덕웅과 최훈석(2006)은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370개 현상의 목록을 제시하여 2004년 말미에 전국의 대학생 1600명에게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응답치를 분석하였다. 유사한 연구를 1994년과 1999년에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면서 응답자들의 50% 이상이 지적하는 사회문제를 파악한 결과를 가장 높은 순위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높은 실업률, 정치인 부정부패, 환경오염, 입시위주교육, 취업난, 정치불신, 서민의 생활고, 정치적 무능, 신용불량, 지방대 출신 취업난, 정치불안, 그리고 공무원 부정부패이다. 이들을 크게 영역별로 분류하자면 경제(실업, 취업난, 생활고, 신용불량 등), 정치(부정부패, 불신, 무능, 불안 등), 교육(입시위주, 지방대 출신 취업난), 환경의 네 영역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사회문제는 2004년 조사뿐만 아니라, 1994년 조사(한덕웅, 1994)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10여년에 걸쳐 부침은 다소 있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 인식은 국민 다수의 견해라기보다는 대학생의 견해라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학술지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식자층이 인식하고 있는 주제들을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표방한 만큼, 본 학술지 게재 논문들이 얼마나 해

당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연구의 생태학적 관련성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첫 번째 노력으로, 본 논문은 지난 20여 년 동안 본 학회지가 한국 심리학계 및 한국 사회에서 한 역할을 되짚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회의 창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경험,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 간 이해와 갈등, 문화·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 그리고 제반 현상들을 통해 확인되는 한국인·한국문화·한국사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창간호부터 2015년까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들을 대상으로 논문들의 연구유형,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개관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결과를 시대적 맥락 내에서 해석함으로써, 심리학이 심리학자들 사이의 전유물로만 그치지 않고 현대한국 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해 과학 학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¹⁾

방 법

1) 사회문제가 다양한 만큼 이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본 학술지에만 국한되어 게재될 리는 없다. 다만 본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지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논문

본 연구는 1994년(제1권1호)부터 2015년(제21권4호)까지 총 22년에 걸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에 게재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권두언, 편집위원장의 편집 후기,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의 순서지에 해당하는 글을 제외한 총 464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학회지는 1994년에 1호가 창간되고 1998년까지는 매년 1호가 발간되었으나, 1996년에는 학술지가 발간되지 않았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2호로(2000년의 경우 3호, 2003년에는 특집호 추가 발간) 발간이 확장되었으며, 2004년에는 3호(특집호 추가 발간),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해 4호씩 발간되었다. 중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집호가 추가로 발간되었는데 2005년과 2008년이 이에 해당한다. 2006년에는 5호, 2012년에는 8호가 발간되었다.

분석절차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을 결정한 후에는 본격적인 논문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에 평소 관심을 가졌던 저자들이 팀을 이루어, 분류기준 논의 및 분류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독립적인 분류 내용을 매주 회의를 통해 논의하였으며, 저자들 간 합의에 이를 때까지 기존의 연구 등을 준거 삼아 토론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채점자간 평정치의 일치도를 보여주는 신뢰도 계수(예를 들어 Cohen's Kappa, κ)는 본 연구에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동의도는 모든 경우에 대해 100%($\kappa=1$)가 되도록, 즉, 저자들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를 계속하였기 때문

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을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한 후에, 시대적인 흐름이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시기를 추가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학술지가 발간된 초창기의 1994년부터 2000년까지를 제1기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제2기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제3기로,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제4기로 분류하여, 내용적 분석 결과의 시기별 추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²⁾.

분류기준

국내학술지 논문을 분류하는 기준은 김계원 등(2011)이 제시한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통계분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이해림 등(2014)의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 심리학 학술지 게재논문을 개관한 논문들이 사용한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상담 또는 임상심리학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문화 및 사회문제 영역의 연구를 분석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문화 및 사회문제”라는 학술지의 특성 상 분석수준(levels of analysis)을 “개인”에 머무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논문들이 사용한 분석수준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말하자면 첫째, 연구대상인구 즉 연구참가자들의 특성이 연구내용에 반영되는 상태에서 이를 연구에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둘째, 연구의 내용이 개인수준 외에 공동체나 지역사회 또는 문화 수준까지 아우르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는 Trickett 등(2011)이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을 수행한 연구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애초에 연구자들이 명확한 틀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서(top-down process),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들의 특성에 근거하여 틀을 계속적으로 수정해가며 가능한 한 많은 논문들을 일관되게 분류할 수 있도록 (bottom-up process)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유형

개별 연구를 수행한 목적을 기준으로 대분류 할 수 있는 연구의 유형을 크게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리뷰논문인데, 이에겐 체계적 개관논문과 개괄적 제언논문이 포함되었다. 둘째는 척도개발 논문, 그리고 셋째는 그 외의 실증적 연구이다. 즉, 리뷰논문과 실증적(empirical) 연구 논문을 먼저 나눈 후, 실증적 논문 중 척도개발 연구들을 별도의 범주로 묶었다. 척도개발 연구는 일반적인 경험적 연구들에 비해 그 목적이 매우 특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시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변화 또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최근 20년이라는 기간은 시대적 변화가 심리학 연구에 반영된 형태를 관찰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시대를 지나면서 심화된 신자유주의, 또는 정권의 변화 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변화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변화는 점진적 변화라는 특성 상 해당 변화를 20년 중의 일정 연도에 특정하게 되면 결국 자위적인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기적 구분을 5년 단위의 다소 기계적인 방식으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연구내용

각 논문이 주제로 삼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을 중심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개별 연구의 예측변인들은 그 분석의 수준(levels of analysis)에 따라 개인수준, 공동체수준(micro system level), 그리고 사회문화적 수준(macro system level)으로 나누었다(Bronfenbrenner, 1979). 공동체수준은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단위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괄한다. 사회문화적 수준은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공정책이나 법규 또는 문화적 기대와 같이 개인의 신념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화, 제도, 환경적 변인들을 포괄하는 단위이다(Kloos, Hill, Dalton, Elias, & Wandersman, 2013). 개별 연구의 결과변인들은 심리학 연구의 특성 상 모두 개인 변인에 속했기에, 개인의 신념, 행동, 태도를 포괄하는 개인 내적 변인과 개인이 맺는 관계성을 포함하는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각 연구가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 내 “문화” 또는 “사회문제” 심리학 연구의 참가자들은 문화적으로 다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안숙(2015)이 공동체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화적 다양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인종(ethnicity), 성 관련(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장애(dis/ability), 종교(religion) 등의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각 연구들이 해당 연구참가자들의 특성에 대해 논문에서 언급하였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가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연구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

므로(Trickett, Espino, & Hawe, 2011), 본 학회지의 게재논문을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구방법

논문을 크게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들과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들로 나누었다. 양적연구 논문들은 다시 개별 연구들이 실험연구였는지 조사연구였는지를 구분하였다. 조사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논문들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연구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논문에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고, 더불어, 참가자들의 연령 및 성별과 함께, 지역별 모집단위를 분석하였다. 즉, 연구자의 소속 기관과 동일한 근접지역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국내 전국단위 모집이었는지, 또는 외국인·외국거주한국인·비교문화연구 등으로 국내외 인구를 모집하였는지, 나아가 2차 자료 분석이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전술한 기준 범주에 따라 464개 개별연구들을 분류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시기별 추이를 보기 위해 네 시기 각각에 대해 범주별 빈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게재논문 수

시기별 게재논문 수의 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창간 후 5년 단위로, 제 1기는 80편, 제

표 1. 창간 후 5년 단위 시기별 게재논문 수

시기	연도	게재논문수	백분율
제 1기	1994년~2000년	80	17.2
제 2기	2001년~2005년	110	23.7
제 3기	2006년~2010년	121	26.1
제 4기	2011년~2015년	153	33.0
합계		464	100.0

2기는 110편, 제 3기는 121편, 제 4기는 153편으로, 전반적으로 본 학술지의 게재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연구유형에 따른 분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464개 논문 중 가장 많은 수는 척도 개발을 제외한 경험적 연구로 전체 게재논문의 72.6%에 해당되었다. 이는 시기별 추이에서도 명확히 보이듯,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게재논문 대비 게재 비율이 증가하는 연구유형이기도 하였다. 전체 게재논문 중 리뷰에 해당하는 논문은 110개였는데(표 2), 시기별 추이로 보았을 때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그림 1). 이는 학술지 발간 초창기에 학술지의 성격을 규정짓는 특징의 논문들이 빈번하게 게재되었던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

나면서 경험적 연구의 증가와는 달리 점차 감소한 유형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게재된 척도개발 논문들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일관된 추이를 관찰하기 어려웠다(그림 2).

연구내용에 따른 분류

예측변인 분석

개별 연구들이 다른 예측변인을 분석의 수준(levels of analysis)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증적 연구 337편의 논문 중 개인 수준 변인을 다룬 논문이 거의 절반(49.2%)을 차지하였는데, 성별, 동기, 태도, 도덕성, 자기개념 등 개인의 특성 변인을 비롯하여, 뇌전위나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변인들도 이에 포함되었다. 부모 변인, 폭력환경에의 노출여부 등 개인이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공동체

표 2. 연구유형에 따른 게재논문 분류

	게재논문 수	백분율
연구유형	척도 개발 외 실증적 연구 논문	337
	리뷰 논문	110
	척도 개발 논문	17
합계	4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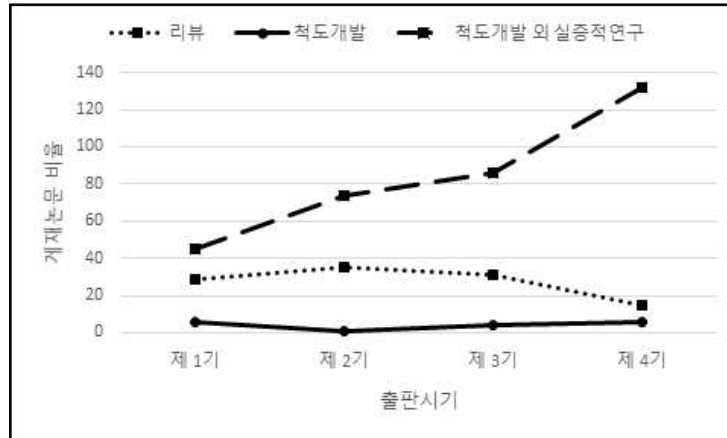


그림 1. 시기별 · 연구유형별 게재논문 비율

내에서의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둔 연구들은 24.4%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수준의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둔 연구들도 4.7%를 차지하였는데, 한국문화, 집합주의문화, 문화차이, 또는 법규를 비롯한 공공정책 등을 다룬 연구들이 이에 속하였다. 성고정관념이나 문화적응, 문화성향 등의 변인은 비록 그 근거는 사회문화적 수준에 있지만 개인이 개별적으로 갖는 신념이나 태도로 환원되어 개인의 반응을 측정하였으므로 개인수준의 변인에 포함시켰다. 특히, 개인 수준과 공동체 수준을 함께 다루거나 공동체 수준과 사회문화 수준, 또는 개인 수준과 물리적 환경 수준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도 다수였는데, 이런 경우 각각의 수준에서 중복하여 셈하였다. 얼마나 많은 연구논문들이 개인, 공동체, 사회문화 수준을 각각 다루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에서 여러 수준의 변인이 동시에 다루어졌을 때 변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가려내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판단하였다(표 3).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수준의 차원으로 가려내기 어

표 3. 예측변인의 수준별 분류

예측변인의 수준	게재논문 편수 ^a	백분율
개인 수준	190	49.2
공동체 수준	94	24.4
사회문화적 수준	18	4.7
물리적 환경	14	3.6
분류 불가	70	18.1

주. 게재논문 편수^a: 한 논문에서 다룬 예측변인들이 이상일 때에는 각 수준에서 중복으로 셈하였음.

려운 논문들도 다수 게재되었는데, 이는 주로 실태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또는 비교조사연구 등으로, 특정한 예측변인 및 결과변인을 상정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들과는 성격이 달랐다(표 3).

이와 같은 예측변인들의 분석 수준이 게재 시기별로 특정한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해보았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기를 제외하면 공동체 수준의 변인들은 개인수준 변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회문화 수준의 변인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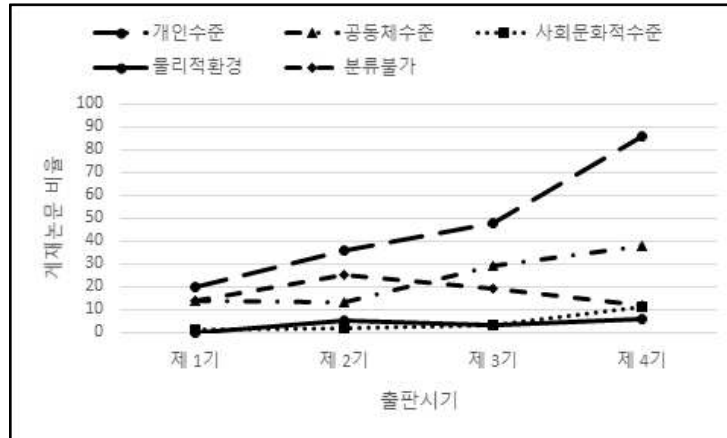


그림 2. 예측변인의 수준의 시기 별 변화

추세였다. 분류 불가로 묶어진 비교조사는 연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는 학술지의 출판초기에 리뷰 논문이 많았던 결과와 일관되는 현상으로, 비교조사 및 실태 연구 등에 대한 수요가 학술지의 출판초기에 두드러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그림 2).

결과변인 분석

개별 연구들의 결과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변인의 분류가 가능했던 264편의 논문들을 먼저 측정에 있어서의 분석수준 별로, 개인적 수준과 사회·관계적 수준으로 우선 분류하였다. 결과변인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면 개인적 수준으로 분류되었지만, 가족관계 만족도 내지는 지역사회수용성 등을 측정하였으면 사회관계적 수준으로 분류함으로써 결과변인들의 내용을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인적 수준의 변인들은 우울,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등을 포함한 개인 내적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다룬 논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표 4. 결과변인의 내용 별 분류

결과변인	게재논문 편수	백분율
개인적 수준	196	74.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57	21.6
정신건강 변인들	44	16.7
인지적 변인들	30	11.4
고정관념 및 가치관	9	3.4
음주, 도박, 비행	13	4.9
기타	43	16.3
사회·관계적 수준	68	25.2
사회관계 변인	34	12.9
특정 사회사건/ 사회집단 지각	17	6.4
친사회적 행동	8	3.0
관계 내 폭력	7	2.7
환경 관련 변인	2	0.8
합계	264	100.0

차지하였고(74.2%, 196편), 관료부패, 사회적 거리감, 이타행동, 사회통합감, 데이트폭력, 콘돔사용, 조직적응, 부모자녀관계, 문화통합,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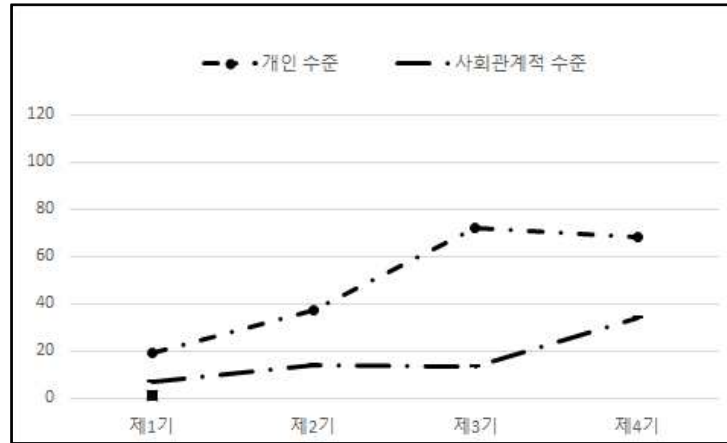


그림 3. 결과변인 내용의 시기 별 변화

회정의실현 등 사회적 관계성 및 환경적 맥락을 내포하는 사회적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다룬 논문이 25.8%(68편)를 차지하였다. 사회·관계적 수준의 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4기에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나아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내적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다룬 논문들은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심리적 적응 등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다룬 논문들이 가장 많았고(57편), 그 다음으로는 우울, 두려움, 소외감, 소진감 등의 정신건강 영역에 속하는 변인들을 다룬 논문들이 많았다(44편). 그리고 귀인양식, 암묵표상, 기억 등과 같은 인지적 변인들(30편)이나, 고정관념 및 가치관 관련 변인들(9편)을 다루었다. 그 외에 학습, 운전, 거짓말 등과 같이 내용적으로 묶기에 무리가 있는 논문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는데(43편), 그 중 운전자 인지 및 행동관련 논문이 다수(34편)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음주, 도박, 비행과 같은 사회문제 성격이 강한 내용을 개인수준의 변인으로 측정할 경우 (13편)들도 발견되었다(표 4).

사회·관계적 수준의 변인을 결과변인으로 다룬 논문들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를 비롯해 지역사회수용성 및 직무만족도 등 사회·관계 변인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았고(34편), 특정 사회사건이나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지각 또는 판단을 다루는 논문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17편). 나아가 준법행동 또는 이타적 행동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다룬 논문들(8편)과 함께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 등 관계 내에서의 폭력을 다룬 논문들(7편)이 발견되었다. 소수이지만 환경 관련 변인을 다룬 논문들(2편)도 발견되었다.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45편이었는데, 이들을 정안숙(2015)이 제시한 문화적 다양성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인종을 다룬 논문들(22편)의 경우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등을 포함하였으며, 성 관련 변인을 다룬 논문은 2편으로 여성근로자 및 여성리더를 주제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차원은 노숙자, 실직자, 실업자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20편), 장애/비장애 차

표 5. 연구대상 (특정된 연구참가자) 분류

연구대상 분류 기준	게재논문 편수	백분율
인종	22	15.2
성	2	1.4
사회경제적지위	20	13.8
장애/비장애	7	4.8
종교	1	0.7
기타	93	64.1
합계	145	100.0

원에 포함된 7편의 논문들은 주로 환자 및 내담자를 다루는 논문들이었고, 종교를 다룬 논문(1편)의 경우 기독교인을 연구참가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특정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적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 또는 사회적 소수(social minority)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연구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이 절반 이상(93편, 64.1%)인 결과이다. 이들은 주로 특정직업군(군인, 공무원, 경찰, 법조인, 교사, 주식투자자, 직업운전자

등), 또는 폭력피해자(성폭력피해자, 학대피해자 등), 또는 특정 역할 및 경험에 따라 규정된 인구(부부, 운전자,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해외 거주 후 귀국한 한국인 등)를 다루었다(표 5).

시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종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수는 적지만 장애/비장애 관련 연구도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연구는 제1기와 제4기에 두드러진 특징인데, 제1기는 학술지 창간 초기의 개관논문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에서 비롯된 현상이고, 제4기의 경우는 노숙자, 실직자, 실업자 연구들이 증가해서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실증적 연구 354편 중, 가장 많은 수는 설문문을 통한 연구(278편, 78.5%)였다. 이 중 대부분의 연구는 상관관계를 기초로 한 조사연구였고(240편), 그 외 38편(설문 연구 중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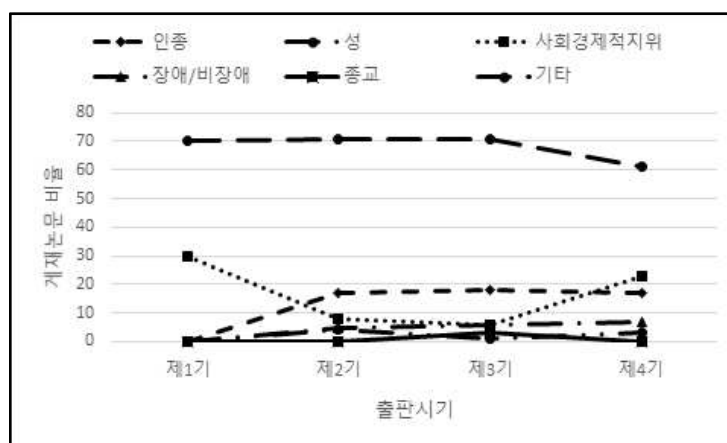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대상(특정된 연구참가자)의 시기별 변화

표 6.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연구방법	개재논문 편수	백분율
조사연구	278	78.5
실험연구	42	11.9
질적연구	20	5.6
조사+실험연구	4	1.1
조사+질적연구	5	1.4
실험+질적연구	3	0.8
2차자료 분석	2	0.6
합계	354	100.0

의 경우 경로분석 또는 공변량구조분석 등을 통하여 인과관계 모형을 분석한 연구였다. 실험 연구는, 기초심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고전적 의미의 실험과 함께, 임상 및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특정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를 포함하여 42편(11.9%)이었다. 그리고 질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한 연구는 20편(5.6%)이었다. 나머지 14편의 논문은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조사연구와

질적연구,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합하거나 2차자료분석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표 6).

개별 연구가 사용한 연구방법의 변화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특히 실험연구 및 질적 연구가 여전히 조사 연구에 비해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척도개발 연구를 제외한 실증적 연구 337편 중 연구참가자의 성별 특성을 명시한 연구는 298편(88.4%)이었다(표 7). 그 중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정 성별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성폭력가해 또는 성폭력피해, 여성리더 등과 같이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이 이루어진 연구들도 있는 반면, 연구 유형 및 내용과의 연관성은 설명되지 않은 채 특정 중고등학교 인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표집된 연구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연구참가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척도개발 연구를 제외한 실증적 연구 337편 중 연구참가자의 연령 특성을 명시한 연구는 32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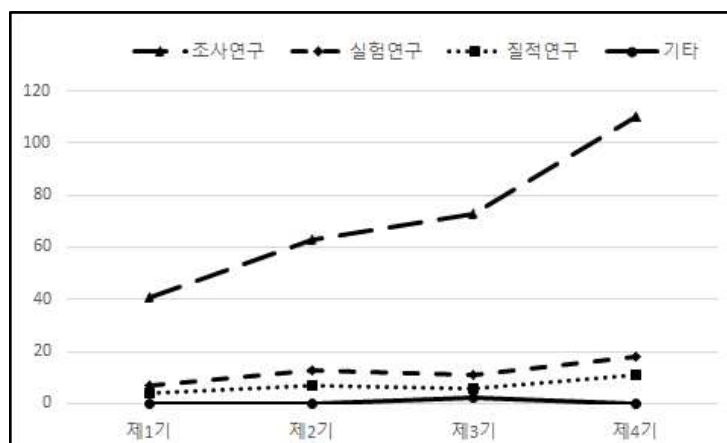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방법의 시기별 변화

표 7. 연구 참가자 성별 분류

연구 참가자 성별	게재논문 편수	백분율
남녀	262	87.9
남	14	4.7
여	22	7.4
합계	298	100.0

표 8. 연구 참가자 연령별 분류

연구 참가자 연령대	게재논문 편수	백분율
유아동	7	2.2
청소년	34	10.5
대학생	90	27.7
성인	123	37.8
노인	12	3.7
유아동+청소년	1	0.3
청소년+대학생	10	3.1
청소년+성인	18	5.5
대학생+성인	21	6.5
대학생+노인	5	1.5
성인+노인	2	0.6
유아동+청소년+성인	2	0.6
합계	298	100.0

(96.4%)이었다. 유아동, 청소년(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그리고 노인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표 8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성인(37.8%)과 대학생(27.7%)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러 세대를 아우른 연구들도 59편(18.2%)이었다.

연구참가자들의 모집지역을 명시한 연구는 실증적 연구 337편 중 256편(76%)이었다. 그 중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 인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다수(61.3%)였고, 전국단위 모집도 82개 연구(32%)에 해당하였다. 적은 수이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3.1%) 및 한국과 외국에서 참가자 모집이 동시에 이루어진 비교문화 연구들(3.5%)도 있었다(표 9).

외국인 또는 외국거주 한국인 연구 중에서는 일반성인 연구가 62.5%(5편), 대학생 연구가 37.5%(3편)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국과 외국에서 동시에 모집된 참가자로 이루어진 연구들의 경우, 일반성인과 대학생 연구의 비율이 각각 1/3(3편씩)을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청소년(1편), 노인(1편), 그리고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연구(1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전국을 모집지역으로 한 연구들은 본 학술지의 제1기에 가장 두드러졌고, 외국 거주

표 9. 연구 참가자 모집 지역 분류

연구 참가자 모집지역	게재논문 편수	백분율
연구자 소속 기관 인근 지역 모집	157	61.3
전국단위 모집	82	32.0
외국 (외국인/외국거주 한국인)	8	3.1
한국+외국 동시모집	9	3.5
합계	29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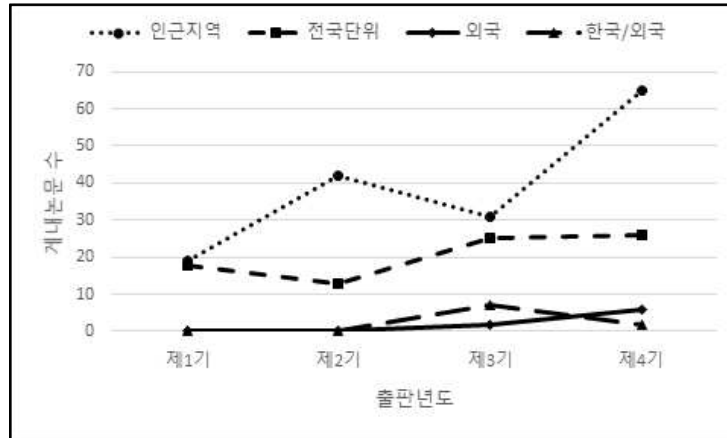


그림 6. 연구참가자 모집 지역의 시기별 변화

중인 한국인 및 외국인을 포함하는 연구들은 제 3기 및 제4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그림 6).

붙이고자 한다.

연구유형과 분석수준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가 1994년 발간을 시작한 이래로 22년간 다루어온 연구유형 및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방법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시도한 첫 논문이다. 창간 이후로 본 학회지가 한국의 사회문제 및 문화적 다양성을 주제로 한 체계적인 심리학 연구들을 게재해 왔는지, 이를 통해 더 많은 학문적·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연구유형, 분석수준,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창간 후 5년 단위로 나누어 시기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덧붙

본 학회지는 발간초기 체계적 개관 또는 제언적 개관으로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들을 주로 게재하였던 것이 특징적이다. 이후에는 총 게재논문 수에서 개관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이에 반해 실증적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연구의 분석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연구의 예측변인과 결과변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예측변인은 심리학의 특성을 반영하듯 개인 수준의 변인을 다룬 연구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수준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문화적 수준의 변인을 구체화하는 경우는 전체 실증적 연구의 30% 정도에 불과하였다(복수의 변인을 각각 셈하였으므로 총계는 100%를 초과함). 또한 결과변인은 개인 내적인(intra-personal) 내용을 다루는 변인들이

56.3%를 차지하였고 사회적 관계성을 내포하는(inter-personal) 내용을 다루는 변인은 42%로 나타났다(복수의 변인을 각각 셈하였으므로 총계는 100%를 초과함). 심리학의 특성 상 개인 수준의 변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 학회지가 표방하는 성격 상 개인생활의 “사회”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였다. 특히 개인이 속한 집단의 고유한 효과를 가려낼 수 있는 측정 및 분석 도구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식의 심리학적 환원론이 당연시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본 학술지만의 특성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내용

본 논문의 결과를 한덕웅과 최훈석(2006)의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심리학적 연구로서의 사회문제와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사회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확인되었다. 즉, 본 학술지가 지난 22년간 게재해 온 논문들 중에서 한덕웅과 최훈석의 연구들(한덕웅, 1994; 한덕웅과 최훈석, 2006)에서 지적된 사회문제에 해당되는 논문은 교육관련 특별호(2008년) 및 실직자·실업자·노숙자 연구를 제외하면 10편이 채 못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관련 사회문제 중 생활고나 신용불량을 다룬 연구, 정치관련 사회문제 중 정치인의 부패를 다룬 연구, 교육관련 사회문제 중 지방대 졸업생 취업난을 다룬 연구, 그리고 자연환경을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나아

가 한덕웅과 최훈석(2006)의 연구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다. 개성공단, 북한 핵실험, 천안함 사건, 중북/좌빨 또는 일베 등으로 대표되는 남북한 간 긴장관계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비롯해서, 우리사회를 2014년 4월16일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고도 하는 세월호 참사,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표되는 갑질문화, 그리고 최근이기는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2016년 9월28일부터 효력)이 제정될 만큼 학교나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했던 촌지 또는 접대 문화 등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 또한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 학회와 학술지의 창간정신을 받들어 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주제라고 본다.

먼저 “문화” 관련 연구는 리뷰논문의 경우 18편(리뷰논문의 16.3%), 척도개발 연구를 포함하는 실증연구의 경우 73편(실증연구의 28.7%)이 해당되었다. 전반적으로 게재논문의 1/10 수준을 유지하다가, 학회명 및 학회지명 개칭이 이루어진 2012년 8월 이후부터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리뷰논문의 경우 한국문화에 특징적일 수 있는 사회현상들을 고찰하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인의 성취의식, 한국문화와 교육의식, 신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포함된 문화적응 및 비교문화 연구들을 비롯하여, 인고,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대인관계 신뢰, 지하철 자리양보, 자기인식 등을 한국문화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두드러진 현상은, 문화 관련 연구 총 91편에 자주 등장하는 저자들이었다. 이들은 김의철(17편), 박영신(14편), 한성열(10편), 최상진(9편), 정태연(7편) 등이다. 또한

분석 대상의 마지막 2년인 2014년과 2015년에 문화 관련 논문이 18편 게재되었는데, 이는 전체 문화 관련 연구의 약 1/4에 해당한다. 최근의 이들 연구 수행자들이 기존의 대표적 문화연구자들에 치중되지 않는 저자 분포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 및 한국문화에 특징적인 현상들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대한국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만한 범주라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이 관심 가질 법한 특정한 인구사회학적 집단에 대한 연구가 저조한 편이었다. 실증적 연구의 전체 게재 편수를 고려하면 15%만이 문화적 다양성의 세부 차원들을 기준으로 분석할 만한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성 관련 기준으로는 성별(gender)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또는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주제까지도 충분히 포괄할 만하는데도, 본 학술지에서는 특정 성별로서의 여성(여성근로자 및 여성리더)을 다룬 논문 2편을 제외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 문제는 사회적인 오점(stigma)이 갖는 부정적 영향력이 너무 큰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또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도, 직접적인 사회 운동의 형태 대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낡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평등이 개인의 안녕, 개인의 행동양식, 그리고 개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력이 학술 연구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1930년대 대공황 상황, 즉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었던 상황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회문제 심리학회(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를 창립(1936년)하고 1945년에는 분과학회로 자리매김하였다(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2016). 당해부터 사회문제지(Journal of Social Issues)를 발간하였고, 최근에는 사회문제 및 공공정책 분석(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과 사회문제 및 정책 리뷰(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를 발간하면서 학회의 창립 철학에 부응하는 연구들을 게재해오고 있다. 이는 1945년 발간호에서 다룬 연구주제가 집단간 갈등 문제였고, 특히 이를 종교 및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논의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는 점이다(Welch, 1945). 말하자면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의 문화적 바탕을 살피면서 다양한 가치체계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데 심리학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성찰하려는 노력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로 각종 사회갈등 문제 및 문화다양성 문제를 천착해왔고, 2015년의 최근호는 인종간 결혼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에 사회적 맥락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반한 것으로서, 심리학 연구로 공공정책의 영역에까지 관심을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미국 사회문제 심리학회에서 정책 펠로우십을 두고 일종의 박사후과정과 같은 연구 직책을 두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종교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들이 미국 사회문제 심리학회지에서는 빈번한 논문주제가 되지만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기준으로 단 한편만이 이에 해당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답하는 절반을 제외하고 나면, 종교인의 22%는 불교, 21%는 개신교, 그리고 7%는 천주교라고 응답한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즉, 원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종교는 “기타”로 함께 분류해도 퍼센트로 수치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인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소수 종교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불편은 종교 뿐 아니라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다른 사회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인구에 대한 연구는 문화다양성의 여러 차이를 이용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에 실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집단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특히 여러 종류의 집단간 갈등 중에서 어떤 유형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참가자의 51.4%는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을, 36.3%는 ‘경제적 계층 간의 갈등’을, 32.6%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갈등’을, 27.5%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갈등’을 꼽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은 ‘진보와 보수세력의 갈등’에서 두드러졌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은 없다. 이와 같은 괴리는 최근의 한국사회 정치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본 학술지의 역

할과 본 학회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경제적 계층 간의 갈등’,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 ‘경영자와 근로자의 갈등’ 등은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현현되는 양상을 드러내준다. 지난 22년간 본 학술지에서 다루어진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인구는 20편에 불과했는데, 이들은 모두 노숙인, 실업자, 실직자 대상의 연구였다. 그러나 현대한국사회에서는 실직이나 노숙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해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환경에 처해 있거나 또는 신자유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집단간 갈등, 서열과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수용되었던 “갑을관계”에서 배태된 갑질행위와 같은 인권유린적 행태가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 및 사회문제를 다루는 본 학술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갈등 구조와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고통, 더 나아가 갈등해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들이 더욱 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본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들에서 연구참가자들의 연령분포는 성인, 대학생, 청소년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따지면 청소년이나 성인 인구는 실재를 반영한 수치이지만, 대학생 인구는 실제 인구의 2배 이상으로 연구표집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안전행정부, 2016). 많은 심리학 연구가 아직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8.64%인데(안전행정부, 2016), 연구에 반영된 경우는 3.7%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연령

이 증가하면서 동반되는 신체적인 불편, 만성 질환, 재정적 곤란, 심리적 부담, 가족 관계, 인지 기능, 정신 건강, 나아가 삶의 의미 및 삶에 대한 관점(perspective)의 획득 등 심리학 연구의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더 많은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 설문조사를 응용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질적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심리학에서 대부분의 이론들이 서구 심리학자들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틀로써 한국 사회를 조망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말을 쓰고, 서구인과는 분명히 차이나는 세계관을 지닌 한국인들이 펼쳐 보이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기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눈과 이론을 적용시켜야 한다(최상진, 2011; 한규석, 2002; 한규석, 최상진, 2008). 이런 눈과 이론을 갖기 위해서는 선입견이나 이론을 적용시키지 않고 현상을 그대로 분석해서 이론을 구성해 내는 질적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가 심리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으로 부각된 1990년대 이후에, 문화는 단순히 사람들의 행태 상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관·세계관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수용되고 있다(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Shweder & Bourne, 1982). 이런 인식은 서구에서 꽃 피운 심리학이 지닌 문화적 특징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자각을 가져왔다. 즉 현대심리학의 많은 개념과 이론들이 서구문화의 토착적 특성을 지녔다는 것이고, 다른 대륙에서의 문화적 검토가 없이

이식 적용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 땅의 심리학자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본 학술지의 이름도 “문화”를 제호에 담게 된 것이다. 문화심리학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현대심리학의 이론들은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인구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이론들을 95%의 연구로부터 소외된 인구에게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Arnett, 2008). 단순히 연구를 다양한 문화에서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이론의 틀이 바탕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이 검토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문제이다(Linkov, 2017). 그러한 연구들은 서구 심리학 이론의 타당성과 변이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제와 이론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접근하여 분석하는 질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접근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최상진, 한규석, 2000).

나아가 특징적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라고 해도 연구참가자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방법을 기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의 11.6%는 성별특성을, 3.6%는 연령특성을, 그리고 24%는 모집지역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특성의 경우, 목적적 표집이 아닌 편의 표집(convenient sampling) 방식으로 특정 남학교 또는 특정 여학교를 참가시킴으로 인해 참가자의 성별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던 연구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연구의 외적타당도를 손상시키는 설계이다. 모집지역의 경우, 연구참가자를 전국 단위로 모집한 연구들은 꾸준한 비중을 차지

하였는데, 이는 학술지 발간초기에 개관논문이 두드러졌던 특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지역 사회에서 표집이 이루어진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구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라고 해석하면 고무할 만한 현상이지만, 연구기관이 서울지역에 집중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만큼 서울 외 지역 인구의 연구 소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0년대 이후에 외국인이나 외국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함으로써 국외 표집이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아직 상대적인 비중은 높지 않지만 비교문화 연구들도 2000년대에 다수 발견되었던 현상도 연구참가자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후속연구 방향 및 학술지 편집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한국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이다. 이는 지난 22년간 학회 및 학술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고가 진행되었을 것임에도, 학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학술지의 존재 이유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진 흔적은 적었다는 뜻이다. 현대 한국사회에 팽배한 “사회문제”를 나열해보라는 짧은 질문을 심리학자들에게 제시할 때와 일반인들에게 제시할 때 그 결과가 다를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이나 대량해고와 같은 한국사회의 큰 문제가 반드시 산업현장에만 적용되고 심리학적 연구가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졸업 후 개인의 능력수준은 유사 이래 최고임에도 취직이 무기한 유예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

청년들이 경험하는 가난과 비독립, 비결혼, 비연애 상황의 N포 현상은 과연 심리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들은 오히려 이른바 정상적인 생애과제로 여겨지던 것들이 포기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안녕감, 자존감, 사회적 관계, 일탈 등의 전통적인 심리학 연구주제를 현대의 상황적 맥락에 맞게 적용한 사례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이끌 사회적 의의는 더욱 풍부할 것이다. 성소수자의 건강문제나 실직자의 건강문제 및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보건학 및 산업의학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데(김영기와 박재규, 2002; 김정연, 이은주, 하은희, 2001;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직업적 책임을 느낄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학술지가 지난 22년 간 총 4회의 특집호를 발간하여, 안전사고(2003년), 청소년(2004년), 신뢰(2005년), 교육성취(2008년) 등 특정 내용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을 독려했었던 것처럼, 우리사회의 고민이자 이슈인 쟁점들이 더 자주 과학으로서의 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문제의 심리적 결과를 연구한 사례들도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오수성과 신현균의 연구(2008)처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연구나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연구(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연구(정홍주 등, 2015), 대규모 기름유출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사건을 당한 태안반도의 주민들이 겪는 삶의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김교현, 김세진, 권선중, 2009) 등이 그 예이다. 이 연구들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또는 [민주주의와 인권]지에 게재되었다. 한국사회 내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들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고, 그 외 통일이나 부정부패, 갑을문화 등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주제에 다루어지는 정도로 같음되었다. 이는 물론 연구자들의 선택에 의한 투고였을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본 학술지가 이름에 담고 있는 정체성에 상응하는 연구논문들을 활발히 게재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면, 본 학회지 게재논문의 내용 분석결과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피부색이 달라서, 국적이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성정체성이 다수와 달라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의 노동을 해도 계약조건과 임금수준이 달라서,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달라서, 지체의 장애가 중복적 불편이 되어서, 종교적 신념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각종 심리적 결과들과 사회적 현상이 바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지의 주된 연구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의 소수자 연구를 찾으려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지를 검색하는 것이 그 필수적인 첫걸음이 되는 때를 기대해본다. 심리학의 역할이 개인의 안녕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데에 본 학술지가 기여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매년 한국심리학회가 연차 학술대회에서 사회적 이슈나 중요성을 지닌 주제를 선정해 대규모의 학술 심포지움을 열고 있듯이,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도 사회적 현안의 부침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학술 심포지움을 열고 있다. 이런 심포지움에

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하여 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학술지에 특집호를 발간하면, 심포지움에 발표된 논문들의 게재를 권장함과 동시에 다른 논문들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술 논문만 게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서의 논평 신기도 가능할 것이다. 즉, 각 발표논문에 대한 2-4명의 논평을 받아서 게재하면 사회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특집호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학자들을 편집인으로 초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문제를 연구 주제로 개발하고 해당 연구를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편집 방침을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앞에서 제기된 사회문제들에 더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중독 현상(인터넷 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채팅중독 등)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온 돌이킬 수 없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들(비정규직의 확산, 빈부격차의 심화, 성의 개방, 노동의 해방과 더불어 진행되는 일의 종속성 심화, 바코드와 CCTV에 의한 감시의 확산 등)은 풍성한 연구 주제로서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창립 70주년을 넘긴 한국심리학회에는 석사 학위 이상의 정회원만 11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 관련 연구주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학회지의 명칭이 표방하듯이 사회문제와 문화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런 연구를 독려하고, 한국 사회가 드러내고 맞이할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본 학회지에 거는 학계와 일반인의 기대라고 본다. 보다

적극적인 학회의 역할과 그에 걸맞는 학술지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https://ccej.or.kr/index.php?document_srl=382892 에서 2016. 9. 25일 자료 얻음.
- 교육부 (2016). 커리어넷 학과정보.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major/FunivMajorView.do?SEQ=330#tab2>에서 2016. 5. 2. 자료 얻음.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영기, 박재규 (2002).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11, 41-66.
- 김교현, 김세진, 권선중 (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이론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89-208.
- 김정연, 이은주, 하은희 (2001). 산업재해 환자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3(2), 141-151.
- 안전행정부 (2016). 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에서 2016. 5. 2. 자료 얻음.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공동체심리학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정홍주, 오수성, 이영호, 박중규, 신현균, 김석웅, 정명인 (2015).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민주주의와 인권, 15(3), 385-414.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오수성, 신현균, 조용범 (2006). 5·18 피해자들의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59-75.
- 이혜림, 김수현, 박은혜, 김나현, 최승원 (2014). 한국 임상 심리학의 연구 동향: 1967~2013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4), 919-942.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6.
- 차재호 (1994). 사회문제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5-19.
- 차재호 (1996). 사회문제연구학회. 한국심리학회 50년사, 323-332. 교육과학사.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국 문화 및 사회 문제 심리학회 (2016). <http://www.kpaci.or.kr> 에서 2016. 2. 13. 자료 얻음.
-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 마음의 문화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281-307.
- 한규석 (2002).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67-95.
- 한덕웅. (1994).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웅. 최훈석 (2006).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 지난 10년간 세 시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03-128.
- Arnett, J. J. (2008). The neglected 95%: Why American psychology needs to become less American. *American psychologist*, 63, 602-61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loos, B., Hill, J., Dalton, J. H., Elias, M. J., & Wandersman, A. (2013).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dependence, KY: Wadsworth.
- Linkov, V. (2017). Psychology is not primarily empirical science: A comparison of cultures in the lexical hypothesis tradition as a failure of introspection. *Integrativ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in press. Available at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124-016-9375-1>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Why we think the way we do*. New York: Free Press.
- Shweder, R. A., & Bourne, E. J. (1982).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A. J. Marsella & G. M. White (eds.), *Cultural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and therapy*. Dordrecht, Holland: D. Riedel.
- Society for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2016). <http://www.spssi.org/index.cfm?fuseaction=Page.ViewPage&pageId=1977> 에서 2016. 2. 13. 자료 얻음.
- Trickett, E. J., Espino, S. R., & Hawe, P. (2011). How are community interventions conceptualized and conducted? An analysis of published accou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5), 576-591.
- Welfrich, G. (1945).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1(1), 2-4.

논문 투고일 : 2016. 11. 10
1 차 심사일 : 2016. 11. 12
게재 확정일 : 2017. 04. 13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Research on the Social Issues in South Korea: Publications of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ulture and Social Issues](1994-2015)

Ansuk Jeong¹⁾

Yookyung Eoh²⁾

Gyuseog Han³⁾

¹⁾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²⁾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³⁾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ulture and Social Issues] systematically. For the past 22 years from 1994 to 2015, 464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 We analyzed the 337 empirical research articles, with respect to their objectives, predictor and outcome variables, and their methodologies. Most of the studies dealt with variables at individual level; some dealt with variables of the community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level. Many of the studies included general population, not necessarily social minoritie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literature on the social issues that Koreans perceive as social issues. Also it is noteworthy that many studies failed to specify su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age, gender, and locality of their participants in the artic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discussed the roles of psychology and of the Journal in the contemporary Korean context.

Key words : Systematic review, social issues, social minority, cultural diversity, role of psychology